



노용희

서울대 명예교수  
배달환경클럽 회장



5일은 UN이 제정한 세계환경의 날이다. 1972년에 열렸던 인간환경회의(UNCHE: 스톡홀름회의)에서 채택한 날이니까 벌써 올해로 스물 한번째로 맞는 날이다. 이 날이 제정된 후 세계각국은 주간 또는 월간행사를 통해 환경문제에 관한 국민의 의식구조개혁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그 결과 환경문제의 심각

## 세계환경의 날이 오면 생각나는 일

성을 모두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환경문제의 심각성은 국지적 또는 지역적 오염문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범지구적 문제로서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지난해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열렸던 국제연합 환경과개발에 관한 회의(UNCED: 리우회의)에서는 ESSD라는 새로운 개발개념을 담은 리우선언을 채택하였다.

이제 인류가 지구상에서 살아 남을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인간 중심적개발 자세를 버리고 생물중심적개발에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는 중대한 결심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을 대립된 것으로 보는 이원론적 시각을 버리고 양자가 양립될 수 있는 통합적인 시각으로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ESSD를 개발개념으로 새롭게 채택하는데 전세계가 합의를 본 것이다. 그러나 지난 30여년 동안 경제성장 제일주의를 내세우고 경제성장을 위한 환경파괴는 불가피하다는 사고방식으로 살아 온 우리나라의 경우 이 커다란 변혁에 둔감한 것 같아 안타깝다. 새로운 정부가 내세운 신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연간 7%라는 경제의 양적성장을 목표로 정부규제를 완화시키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기업가나 국민이 많기 때문이다. 이 점을 하루속히 시정할 수 있는 개발의 개념에 대한 지도를 정부는 서둘러야 할 것이다. 모처럼의 규제완화와 투자장려로 성장된 우리의 경제규모가 자원낭비나 에너지다소비형으로 몰려 국제경쟁력을 상실한다면 새정부의 경제시책에 대한 집권만료후의 평가가 달갑지 못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우를 전제로 환경의 날이면 연상되는 몇가지 사사로운 일들을 적어 보기로 한다.

그 첫째는 인간환경세미나에 관한 추억이다. 이 세미나는 동양방송과 중앙일보가 주최한 것이었는데 스톡홀름회의가 열리기 두 주일전인 1972년 5월 24일부터 이틀동안 수유리의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열렸다. 1972년은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집행되는 1차년도였기에 우리나라의 공해문제도 심각성을 띠고 있는 때였다. 그러나 경제성장을 신앙에 가까운 정도의 집념으로 추진해 나간 정부는 환경오염의 거론을 최악시 하였고 빈곤으로 부터의 해방을 염원하는 국민들도 이를 지지하는 사회풍조였다. 푸르고 맑은 하늘 밑에서 굶주리는 것 보다는 스모그아래서라도 비이프 스테이크를 찌르는 것이 옳다

고 믿는 국민이 대다수였다. 이러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중앙일보가 이 세미나를 개최한 의도는 정부 대표단이 스톡홀름회의에 참석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밝혀보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대표단에서는 한사람도 참석하지 않았다. 스톡홀름회의에 참가하고 돌아 온 뒤에도 그 회의에서 채택된 인간환경선언이나 세계환경의 날의 제정 등에 관해서 일체 함구하지 않을 수 없었던 당시의 분위기로 보아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어찌되었던 이 세미나에서 나는 인간환경문제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환경문제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밝히는 제1분과의 주제를 발표하였다. 이것이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게한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당시 나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새로 신설된(1968년)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의 주임교수였다. 따라서 도시계획이나 지역계획과의 연관에서 거론되는 환경문제에 관한 단편적인 정보만을 알고 있을 뿐 공해문제에 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었다. 따라서 이 분야의 선두주자였던 권이혁, 권숙표, 차철환교수 등과 새롭게 사귀게된 것도 이 세미나의 덕이었다. 2주일동안 주야겸행으로 준비한 원고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한 것이었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미흡한 것이어서 부끄럽기 짝이 없다. 환경판매의 대전으로 국부를 형성하는 우를 범해서는 아니된다는 주장은 당시로서는 용기있는 발언이었다고 일응 자위는 되지만 환경과 경제는 양자택일관계에 있다는 논리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세계환경의 날이 올 때마다 생각되는 것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학생회 주최로 1974년부터 3년동안 매년 6월 5일부터 환경전시회를 개최했다는 사실이다. 1973년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를 모체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이 발족되었다. 창원기념으로 1974년 3월 8일에는 「인간과 환경에 관한 세미나」를 아카데미하우스에서 개최하여 환경과 관련한 각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아 분야별 환경관에 대한 토의를 하였고 같은 해 6월 5일에는 학생들이 주동이 되어 환경전시회를 개최하였던 것이다.

캠퍼스 커풀이 생겨날 정도로 학생들은 침식을 잃고 그 준비에 분망하였다. 지금처럼 환경NGO가 많았던 때도 아니고 오염분석을 학문영역으로 하는 분들도 잘못 오염실태를 발표하였다 하여 교수 재임명제의 희생자가 되던 때였다. 서울대학교의 교내행사였기에 별로 문제되지 않고 지냈지만 이 행사는 우리나라에서 환경문제에 관한 전시회로서는 처음이고 권위있는 행사였다고 지금도 자부하고 있다. 그 뒤 몇몇 단체들이 세계환경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하계됨에 따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학생들의 환경문제 전시회는 3번까지만 계속되었다.

세번째로 생각나는 일은 헌법에 환경권을 규정한 일이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우리나라 헌법(5공헌법 제33조, 6공헌법 제35조)은 환경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환경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세계에서 많지않은 헌법을 갖게된 것은 헌법개정 의 빈도가 잦았다는 외부적 여건도 원인의 하나였지만 몇몇 환경전문가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스톡홀름회의에서 채택된 국제연합의 인간환경선언은 「인간은 존엄과 복지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환경속에서 자유, 평등 및 만족할만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지니고 동시에 현재와 장래의 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할 엄숙한 책임을 진다(원칙 제1)」고 밝히고 있었다. 이 환경권이 제5공화국 헌법 제33조에 규정되는데는 환경문제 전문가협의회가 기여가 컸다. 환경문제전문가협의회는 1975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과 원자력연구소가 공동주최한 인간환경세미나에서 결성

된 우리나라의 환경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세계에는 많지 않은 헌법을 갖게된 것은 헌법개정 의 빈도가 잦았다는 외부적 여건도 원인의 하나였지만 몇몇 환경전문가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19

하도록 결정된 환경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각 분야의 대학교수 및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친목단체였다. 지금은 서울에코클럽(일사회)으로 개명되고 참가회원도 30명이 넘어 아시아 태평양지역환경 NGO회의를 서울에서 주최할 만큼 성장했으나 당시에는 서소문에 있는 설령탕집에서 매달 한차례씩 모여 정보교환을 하는 친목모임이었다. 이 모임이 앞장서서 지금은 고인이 된 구연창교수가 마련한 헌법조문초안을 검토하고 당시 국회의 법사위 정희섭위원장을 세차레나 초청하여 토론을 거듭한 끝에 정부의 김도창 법제처장의 도움을 받아 마련된 것이 환경권 규정이었다. 회장인 노재식박사와 지금은 고인이 된 서울대의 홍순우교수, 연세대의 권숙표교수, 고려대의 차철환교수, 당시 보사부의 환경관리담당관이었던 김정현교수, 서울대의 한상복교수, 경희대의 구연창교수 그리고 본인등이 중심이 되었던 회원들이다. 헌법개정시에 환경권이 신설조항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일념아래 설령탕집 서중옥(지금은 없어졌음)의 2층방에서 자주모여 토론을 거듭한것은 지금 돌이켜보아도 대단한 정열이었다고 생각된다.

환경의 날이 돌아오면 생각나는 또 하나의 일은 UNEP가 제정한 「글로벌 500」상을 수상한 일이다. 이 상은 스톡홀름회의 때 설립결정이 내려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 사무국을 둔 UNEP(국제연합환경계획)가 세계인구가 50억에 이른 1986년에 전세계에서 환경문제의 해결에 크게 기여한 500명을 다음해부터 5년동안에 골라 시상하는 것으로 마련된 제도이다. 시상은 당해년도 세계환경의 날의 기념식의 행사의 일환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첫해에는 정보가 어두워 참여하지 못했으나 현재까지 남북한 털어 8명이 이상을 수상하였다. 박노경, 권숙표, 박창근, 노재식, 차철환, 필자 그리고 신용배교수 등이 수상자이고 북한의 영림서 직원 한분이 수상하고 있다. 필자가 글로벌 500상을 탄해는 1991년이었다. 이 해 UNEP가 주최하는 세계환경의 날 행사는 19년전 인간환경회의(UNCHE)가 개최되었던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열렸다. 다음 해에 열릴 리우회의(UNCED)에 대비해서 참석한 브라질대통령과 스웨덴의 구스타프왕과 UNEP 총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각국의 수상자들은 자기나라 고유의 복장으로 시상장소인 시청에 모여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노벨상의 수여와 동일한 장소이고 수상후의 연회장소도 같은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양복을 입고있는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진일은 일생 처음의 경험이었다. 이제 글로벌500상의 1차분은 마감되고 또 다시 500명을 선정하는 2차계획을 진행시키고 있다. 그리고 수상자들로 구성된 글로벌500포럼(Global500 Forum)이 결성되어 새로운 환경NGO로 탄생하였다. 리우회의에서의 결정이었는데 그 결성을 위한 나이로비회의에 우리나라 수상자들은 참여하지 못한관계로 지역조직의 리더십을 이웃나라에 넘겨 주게 되었음을 아쉬운 일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금년 세계환경의 날의 UNEP 기념행사가 열리는 중국의 베이징에도 수상자가 없어 참석못함은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다.

스물한번째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을 돌아본다.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못하고 단기적 필요의 충족에만 몰두하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우리에게겐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고.

미국 지구환경보호계의 거물인 레스터브라운과 더불어 빙산과 충돌한 후 전문가의 판단으로 내려진 구명보트를 타지않고 안전해 보이는 선상에 머물러 있다가 수중지흔이 된 1,500여명의 타이타닉호 승객이 저질른 어리석음이 우리의 어리석음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